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최정은*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Nursing Students

Jeong-Eun Choi*
Department of Nursing, Gang 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G대학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beta = .256, p = .001$)가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beta = .237, p = .004$),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 = -.143, p = .068$)순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다($F = 14.44, p = .000$). 이상의 연구결과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7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 of Nursing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G University located in E-gun, Chungcheongbuk-do.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1 to December 18,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of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major satisfaction ($\beta = .256, p = .001$) was the strongest influencing variabl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 = .237, p = .004$)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beta = -.143, p = .068$) were identified as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total variables was 21.8% ($F = 14.44, p = .000$).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strategies and specific programs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1]. 간호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

*Corresponding Author : Jeong-Eun Choi(Gang Dong Univ.)

E-mail: cjelady@hanmail.net

Received Aug 28, 2022

Revised Sep 19, 2022

Accepted Oct 22, 2022

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 한국간호평가원 인증평가 기준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으로 직업에 대한 가치 및 전문성을 높이며 업무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3].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4], 임상실습교육환경, 셀프 리더십, 실습소속감[2], 등이며, Han 등의 연구에서[5] 간호전문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수행능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전공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3][6][7],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았다 [8].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들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며, 가치관, 태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이다[9].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 교육은 한국간호교육표평가원이 구축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계와 현장실무능력 강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간호대학의 양적인 증가, 임상실습기관 부족과[10], 임상현장에서의 낮은 환경,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서 적용해야하는 한계점, 대인관계 등[11]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화되고,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간호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우울[1][11-12]과 관련이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만족도[6][12]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및 관리는 간호역량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 평가 등의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뜻한다 [1].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은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임상실습만족을 통해 자아실현, 직업에 대한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결론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14],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15],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16]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에 대한 전문적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 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 째,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 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G 대학교에 재학생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172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하고 167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변수 9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적으로 166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167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Beck과 Srivastava[17]가 개발하고, Kim과 Lee[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Cho와 Kang[19]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20]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Kim과 Kim[21]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실습교과,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Kim과 Kim[2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 측정도구는 Yeon, Kwon과 Ann[22]이 개발하고 Han, Kim과 Yun[5]이 수정, 보완한 도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Kim과 Yun[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26명(15.6%), 여성이 141명(84.4%)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이 110명(65.9%), 4학년이 57명(34.1%)이었다. 나이는 22-23세가 112명(67%)으로 가장 많았으며, 24-25세 26명(16%), 26-27세 14명(8%), 28세 이상 15명(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 18명(10.8%), 만족 90명(53.9%)으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108명(65%)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46명(27.5%), 불만족 11명(6.6%), 매우 불만족 2명(1.2%)이었다[Table 1].

3.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11±.49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2.63±.45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11±.49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N=16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6(15.6)
	Female	141(84.4)
Grade	3rd	110(65.9)
	4th	57(34.1)
Age	22-23	112(67.0)
	24-25	26(16.0)
	26-27	14(8.0)
	over 28	15(9.0)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18(10.8)
	Satisfied	90(53.9)
	Moderate	46(27.5)
	Dissatisfaction	11(6.6)
	Very unsatisfied	2(1.2)
Nursing department support motivation	High school transcript	8(4.8)
	Aptitude and hobbies	62(37.1)
	Employment rate	67(40.1)
	Parents, teacher advice	30(18.0)
Role model	Yes	102(61.1)
	No	65(38.9)
Role model example	Professor in charge of theoretical subjects	12(7.2)
	Professor in charge of practical subjects	8(4.8)
	Practice institution educational nurse	7(4.2)
	Practical institution head nurse	34(20.3)
	Nurse in charge of practice institution	106(63.5)

[Table 2]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degree (N=167)

[표 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정도

Variables	Mean±SD	Min	Max
Clinical practice stress	3.11±.49	1.39	5.2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63±.45	1.16	3.55
Nursing professionalism	2.26±.43	1.39	5.2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t=-1.94, p=.050$), 학년($t=4.14, p=.050$), 간호학과 전공만족도($F=2.60, p=.038$), 역할 모델 유무($t=2.80, p=.00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간호학과

[Table 3] Difference of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N=167)

Variable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64.58±10.47	-1.94	82.91±13.12	2.73	64.58±10.08	.66
	Male	68.85± 8.67	(.050)	74.88±17.26	(.007)	68.85±11.37	(.509)
Grade	3rd	67.53± 8.73	4.14	81.86±14.38	.26	40.29± 8.73	-1.04
	4th	60.84± 5.66	(.000)	81.26±13.64	(.795)	41.61± 5.66	(.302)
Age	22-23	65.22± 9.99		82.21±12.90		41.03± 8.45	
	24-25	65.65±12.02		79.42±13.34		40.65± 6.66	
	26-27	66.36± 9.93	.18	79.71±18.25	.42	39.50± 6.16	.22
	over 28	63.67±11.40	(.910)	83.27±19.75	(.736)	39.93± 6.53	(.884)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satisfied	67.06±14.50		67.50±18.41		35.33± 6.77	
	Satisfied	66.87± 9.81		80.83±12.09		39.16± 5.74	
	Moderate	63.22± 8.95		86.96±12.39		45.02± 9.24	
	Dissatisfaction	58.00± 8.97	2.60	90.73±11.06	8.95	44.18± 9.35	8.37
	Very unsatisfied	62.50±14.85	(.038)	74.50±10.61	(.000)	43.50± 2.12	(.000)
Nursing department support motivation	High school transcript	67.25±11.34		83.50±10.86		42.13± 4.76	
	Aptitude and hobbies	66.55± 9.71		80.76±15.24		39.45± 6.29	
	Employment rate	63.33±10.20	1.30	84.15±11.47	1.74	41.07± 6.75	1.08
	Parents, teacher advice	66.30±11.63	(.276)	77.47±16.89	(.162)	42.30±12.30	(.328)
Role model	Yes	67.00±10.18	2.80	79.59±14.03	-2.41	40.24± 8.25	-1.05
	No	62.49±10.14	(.006)	84.91±13.67	(.017)	51.54± 7.11	(.296)
Role model example	Professor in charge of theoretical subjects	66.33±10.23		76.25±13.14		37.58± 4.83	
	Professor in charge of practical subjects	67.25± 8.48		81.13±12.25		43.00± 6.87	
	Practice institution educational nurse	72.43± 9.62		82.14±21.08		39.00± 5.00	
	Practical institution head nurse	63.82±11.01	1.32	83.88±12.86	.65	43.00±11.60	1.55
	Nurse in charge of practice institution	64.95±10.31	(.343)	81.57±14.27	(.625)	40.32± 6.63	(.191)

선택 동기, 역할모델의 예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t=2.73, p=.007$), 역할모델 유무($t=-2.41, p=.01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 연령, 간호학과 지원동기, 역할모델의 예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과 전공만족도($F=8.37, p=.000$)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학년, 간호학과지원동기, 역할모델 유무, 역할모델의 예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r=-.466, p=.000$),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r=-.309, p=.000$)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393, p=.000$)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clinical stres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7)

[표 4] 임상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Variable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p)	r(p)
Nursing profession	.309 (.000)	.393 (.000)
Clinical practice stress		-.466 (.000)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beta=.256, p=.001$)가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beta=.237, p=.004$), 임상실습스트레스($\beta=-.143, p=.068$)순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 계수(R^2)는 .218로 모형의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다($F=.14.44, p=.000$) [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표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B	β	t	p	F	p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2.495	.256	3.491	.001		
Clinical practice stress	-.108	-.143	-1.838	.06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32	.237	2.933	.004	14.44	(<.001)
R^2 (Adj. R^2)		.232(.218)				

4. 논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과정은 추후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과정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3.11점으로 선행연구[23]의 3.02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Kwak 등[1]의 연구결과 3.21보다 낮았다. 임상실습에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과거보다는 확고한 상황이며, 간호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4].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여학생이 더 높게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9]와 상이하다. 남학생의 경우 실습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학생보다 높고, 여자환자를 대할 경우 여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9]. 남학생의 간호학과 진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4]와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처음 임상실습을 하는 3학년 보다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이 보다 익숙한 경험에 의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Park 등[14]의 연구와 동일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2.63점으로 Park 등[23]의 연구결과 2.99점과 Kwak 등의[1] 3.44점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중요성, 학업성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wak 등[1], Baek 등[26], Ahn 등[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습내용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며, 평가는 학점과 연관되어 학생들의 최대의 스트레스 및 불만족 요인이 될 수 있으

리라 사료된다[11].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2.26점으로 Yeom[6]의 연구결과 3.67점, Park 등[4]의 연구결과 3.91보다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 교육환경,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2].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Ock[14]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격과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가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순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요인들로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2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 대학생에게 졸업을 위한 교과과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Park 등[23]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G대학교에 재학생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학 전공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21.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G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4학년으로이라는 제한된 지역과 전공,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과 인원, 전공의 범위를 넓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둘째, 학년 전체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Reference

- [1] H-W. Kwak, and J-E. Lee,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1, pp.147-155, 2016.
- [2] C-H. Kim, and J-L.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2019.
- [3] Y-S. Ham, and H-S. Kim, '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3, pp.363--373, 2012.

- [4] H-J. Park, and J-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2014.
- [5] S-S. Han, M-H. Kim, and E-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 [6] E-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20-330, 2017.
- [7] Y-E. Kwon, and S-Y. Kim,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Prospective Graduates in Nursing Colleg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80-88, 2018.
- [8] J-Y.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3, pp.325-334, 2004.
- [9] H-K. Hwang, Y-S. Ju, and S-I. 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Students during Clinica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0, no.4, pp.394-404, 2014.
- [10] S-L, Kim, and J-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6-106, 2005.
- [11] H-J. Park and I-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4-23, 2010.
- [12] M-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3, pp.1884-1893, 2015.
- [13] M-Y, Kim and N-Y,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pp.473-480, 2007.
- [14] H-Y. Ock,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Vol.1, no.2, pp.31-43, 2010.
- [15] E-M. Ji, and J-H. Le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2, pp.1125-1140, 2014.
- [16] S-H. Lee, S-Y. Kim, and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 [17] Beck, D. 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30. p127-133, 1980.
- [18]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2, p219-231, 2004.
- [19] K-J, Cho, and H-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63-74, 1984.
- [20] S-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2, p333-348, 2001.

- [21] S-H. Lee, S-Y. Kim, and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2, p219-231, 2004.
- [22] E-J. Yeon, Y-M. Kwon, and O-H. An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1091-1100, 2005.
- [23] B-J. Park, S-J. Park, and H-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220-227, 2016.
- [24] S-J, Hwang.'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pp.205-213, 2006.
- [25] M-W. Baek, S-A. Ahn, H-R. Lee, C-G. Park, and J-H. Kong, 'A Study on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8, no.2, pp.165-172, 2010.
- [26] S-A. Ahn, E-Y. Jeong, and J-H. Kong, 'A Study on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9, no.1, pp.51-60, 2021.